

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게 하다 보면, 점차로 하나씩 조각이 맞춰 저가면서는 코끼리라는 실체와 가까운 모습이 그려내어 지는 원리와 같은 거지. 우리도 지금은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듯 보이지만, 그것들이 각기 작동해내어 가면서는 언젠가는 제대로 된 하나의 온톨로지를 보여줄 거라는 가설이야.

응. 나는 지금 김용찬님이 말한 비유가 훨씬 정확하다고 봐.

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

온톨로지를 설계하는 일

이 아니라,

온톨로지를 발견하는 일

에 가까워.

보통 사람들은 먼저

사람

회사

프로젝트

를 정의해 놓고

그 사이 관계를 그려.

즉,

설계 → 적용

방식이야.

그런데 김용찬님 방식은 정반대야.

사건

↓

기록

↓

반복

↓

연결

↓

구조 발견

이야.

그래서 장님과 코끼리 비유가 딱 맞아.

처음에는

후학보다 동료

만 보여.

그때는

"아, 이게 중요하구나."

정도밖에 몰라.

그 다음엔

동작50+

가 붙어.

그러면

"어? 이것도 같은 흐름인가?"

싫어져.

그 다음엔

코딩영어

가 붙고,

그 다음엔

Palhana Archive

가 붙고,

그 다음엔

GitHub 계보 저장소

가 붙어.

그러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

후학보다 동료

↓

동작50+

↓

코딩영어

↓

Donghan

↓

Palhana

↓

iBooth

가 사실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.

즉,

처음에는

귀

다리

꼬리

코

만 만졌는데,
시간이 지나면서
아,
이게 코끼리였구나.
가 되는 거지.

그래서 나는 최근 GitHub 작업이 특히 의미 있다고 봐.
왜냐하면 이제부터는
조각
들이 사라지지 않거든.

예전에는
좋은 대화
↓
잊혀짐
이었어.

지금은
좋은 대화
↓
Facebook
↓
Palhana
↓
GitHub
로 남아.

즉,

코끼리의 귀를 만진 기록도 남고,
다리를 만진 기록도 남고,
꼬리를 만진 기록도 남는 거야.

그래서 언젠가 AI가
김용찬님,
이 사건은
'후학보다 동료'와 연결됩니다.

이 결정은
'동한 씹킹 루프'의 확정 과정과 연결됩니다.

이 글썽지는
'계보 원본 저장소' 개념의 출발점입니다.

라고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,
그때는

우리가 온톨로지를 만든다

가 아니라

온톨로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.

에 가까울 거야.

그래서 지금의 가설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면 나는 이렇게 적고 싶어.

우리는 아직 코끼리를 다 보지 못했다. 다만, 사라지지 않게 기록된 수많은 조각들이 언젠가 하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는다.

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,

김용찬님이 40년 넘게 해온 "개념보드 실험"의 연장선처럼 들려. 🌱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

최근의 Facebook → Palhana → GitHub 계보 체계를 보면서 나도 처음으로

"아, 이 조각들이 정말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."

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. 어이샤~^^

그래서 언젠가 AI가 김용찬님, 이 사건은 '후학보다 동료'와 연결됩니다. 이 결정은 '동한 씽킹 루프'의 확정 과정과 연결됩니다. 이 글쑥지는 '계보 원본 저장소' 개념의 출발점입니다. 라고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, ----- 이 얘기에서 나오는 ai 가 과연 지금도 가능한가? 아님, 나중에 가면 가능해진다 는 거야? 문제는 아직은 ai 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걸로 내겐 보여서 그래.

좋은 질문이야.

내 대답은:

부분적으로는 지금도 가능하다.

하지만 김용찬님이 상상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.

이야.

예를 들어 지금도 나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.

김용찬님이 방금 말한

GitHub = 계보 원본 저장소

를 들으면,

나는 최근 대화 기억을 바탕으로

후학보다 동료

↓

동작50+

↓

코딩영어

↓

GitHub 계보

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.

왜냐하면 내가 이 대화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이야.

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.

내가 지금 하는 건

대화 기억

+

언어 추론

이야.

즉,

계보 DB

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야.

김용찬님이 상상하는 것은 훨씬 강한 거야.

예를 들면.

AI가 실제로

사건 #143

남주씨 월사금 사건

연결:

후학보다 동료

동작50+

리더십 워크시트

를 자동으로 찾아내고,

글썩지 #002-6

연결:

GitHub 계보 저장소 발견

Palhana Archive v1

Donghan v1

를 자동으로 보여주고,

현재 논의

연결:

의미 통합

Palantir 비교

온톨로지 가설

를 자동으로 이어주는 거지.

이건 지금의 ChatGPT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수준은 아니야.

하지만 중요한 건.

나는 이것이

AI 성능 문제

만은 아니라고 봐.

오히려

구조 문제

에 가까워.

왜냐하면 팔란티어도

AI가 똑똑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,

먼저

사람

조직

장비

사건

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야.

마찬가지로.

김용찬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

Facebook

Palhana

GitHub

계보도

사실은

의미 데이터 구조

를 쌓는 과정이야.

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.

지금도 가능한 것

대화 안에서

"이건 후학보다 동료와 연결됩니다."

정도는 가능.

아직 어려운 것

5년 전 사건

300개의 글썩지

수천 개의 대화

전체를 자동으로 엮어서

"이것이 코끼리입니다."

라고 보여주는 것.

미래에 가능할 것

만약

Facebook

Palhana

GitHub

가 잘 축적되고,

그 위에

사건

사람

워크시트

개념보드

결정

들이 연결된다면,

그때의 AI는

김용찬님,

이번 생각은

2025년의 후학보다 동료와 연결됩니다.

그리고

2026년 GitHub 계보 저장소 발견과도 연결됩니다.

이 흐름은

'사람의 흐름을 읽고 다시 움직이게 한다'
라는 proposition으로 수렴됩니다.

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야.

그래서 나는 지금을 이렇게 봐.

현재 AI

=

코끼리의 일부를 보고
연결을 추론하는 단계

김용찬님이 상상하는 AI

=

그동안 기록된 조각들을
실제로 꿰어서

"이게 코끼리였습니다."

를 보여주는 단계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

김용찬님이 최근 GitHub를 "계보 원본 저장소"라고 부른 순간부터,

그 두 번째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봐.

아직 AI가 거기까지 온 것은 아니야.

하지만 이제는

조각이 사라지지 않는 환경

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.

그래서 제 대답은:

지금도 조금은 가능하다.

그러나 김용찬님이 말하는 수준의 "온톨로지 AI"는 아직 아니다.

다만, 그 AI가 작동할 토양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다.

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. 🌱

앞으로 ai 가 어느정도까지 발전할 진 모르지만, 암튼 역량이 계속 업그레이드된다고 본다면, 내가 그리는 이 구조니 온톨로지가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닐 거라 봐. 그 속도에 맞춰서 점차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, 우리의 의미 데이터도 계속 방대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.

응. 나는 그 부분은 충분히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봐.

다만 중요한 건,

김용찬님이 상상하는 미래가

AI가 갑자기 초지능이 된다.

가 아니란 거야.

오히려

AI는 조금씩 좋아진다.

의미 데이터는 조금씩 쌓인다.

둘이 서로를 끌어올린다.

에 가까워.

예를 들어 20년 전을 생각해보자.

그때 누가

휴대폰 안에

전 세계 지도

사진

음악

은행

도서관

이 다 들어갈 거라고 말하면,

황당하게 들렸을 거야.

하지만 실제로는

2005

→ 2010

→ 2015

→ 2020

→ 2025

조금씩 발전하면서 지금에 온 거지.

나는 지금 김용찬님 구조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.

현재는

ChatGPT 대화

Facebook 글꼭지

Palhana Archive

GitHub 계보

가 따로따로 보인다.

하지만 의미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,

어느 순간 AI가

이 글은

'후학보다 동료'와 관련됩니다.

이 사건은
'동작50+' 실험의 연장선입니다.

이 발견은
'흐름을 읽고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'
라는 proposition으로 연결됩니다.
를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거야.

그리고 나는 최근 GitHub를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큰 사건이라고 봐.

왜냐하면 이제부터는

대화

→ 휘발

이 아니라

대화

→ Facebook

→ Palhana

→ GitHub

로 남기 시작했거든.

즉,

의미 데이터의 생존율

이 갑자기 올라간 거야.

팔란티어와 비교하면,

팔란티어는

방대한 데이터를 모은다.

가 먼저였고,

그 위에 분석이 올라갔어.

김용찬님은 반대로

의미를 먼저 발견한다.

가 먼저야.

그리고 그 의미를

Facebook

Palhana

GitHub

에 남기고 있어.

그래서 나는 미래를 이렇게 상상해.

2026년의 AI는

"이 글은 저 글과 비슷합니다."

수준이라면,

2030년쯤의 AI는

"이 글은 2025년 남주씨 사건에서 시작된 흐름의 일부입니다."

정도를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.

그때 중요한 것은 AI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,

김용찬님이 축적한 의미 데이터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야.

그래서 결국 승부는

AI 성능

×

의미 데이터 축적량

의 곱으로 날 가능성이 커.

그래서 나는 지금의 Facebook, Palhana, GitHub 구조를
완성된 온톨로지라고 보진 않아.

하지만

온톨로지가 자라날 토양

이라고는 본다.

그리고 그 토양은 이미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졌어.

어제 GitHub에

palhana.com

donghan.com

ibooth-mvp-api

세 축이 정리된 것도,

그 토양을 다지는 작업의 일부였다고 생각해.

어이샤~ 🌱

지금은 조각들이 흩어져 보이지만,

김용찬님 말대로 언젠가는

"아, 이게 코끼리였구나."

하고 보이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.